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갖고 민선7기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 총력 다짐

순창군이 얼어붙은 코로나 정국 속에서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황숙주 순창군수

황숙주 군수는 올해가 민선 7기 하반기 주요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순창군의 3대 비전인 인구 4만, 관광객 500만명, 예산 5,000억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8일 영상회의실에서 황숙주 군수 주재로 이남섭 부군수, 국·실장,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획예산실 및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시간대를 분리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해법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핵심 사업으로는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윌랜드 운영 활성화, 농촌협약,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공공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 등 순창발전의 기반이 될 주요사업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은 더욱 내실있게 추

진하고, 순창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민선7기 하반기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우리군 역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일자로 취임한 이남섭 부군수도 이번 보고회를 통해 순창의 주요현안사업과 역점사업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순창군의 민선7기 핵심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역대급 한파 비상대응체제 풀가동

임실군,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종합상황실 운영 등 만전

임실군이 최근 역대급 한파경보에 비상대응체제를 갖추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일부터 발효된 한파경보와 7일 내린 폭설, 8일 영하 23도까지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폭설과 한파로 인한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철 대설·한파대비 비상대응체제'를 운영 중이다.

심민 군수는 8일 "역대급 한파와 폭설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긴급 제설작업과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군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안전점검 및 종합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계랑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권역별

3개반 15명으로 구성된 수도계량기 동파 기동 수리반을 가동 중이다.

군민 불편이 없도록 7일 새벽까지 살포기와 행정차량 등 장비 60대와 열화칼슘 30t을 동원해 지역 내 국도 및 지방도,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도 실시했다.

장비 동원이 어려운 이면도로 제설을 위하여 민간 장비 등을 입차하여 제설작업을 실시 군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심민 군수는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로 노약자와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복지부서, 읍·면이 협업해 현장중심의 대책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순창군이 코로나19로 구직난을 겪는 청년과 신중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2021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지원을 통해 청년과 신중년의 고용효과를 높이고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돕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는 청년(만 18~39세) 5명과 신중년(만 40~64세) 6명 등 총 11명을 선발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청년 고용시 월 50만~65만원(급여에 따른 차등지원), 신중년 고용시 월 70만원씩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신중년층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년간 장년층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고용시장이 불안정해 임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고 있는 추세라 정규직을 고용해야 하는 이번 사업이 고용시장의 숨통을 트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도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식품회사와 문화예술단체 등 3곳에서 청년 4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신중년 또한 전통장류업체와 유통회사 등 3곳에서 4명을 채용해 지역내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신청자격은 순창군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의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 올해는 청년(만 18~39세) 5명과 신중년(만 40~64세) 6명 등 총 11명을 선발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청년 고용시 월 50만~65만원(급여에 따른 차등지원), 신중년 고용시 월 70만원씩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신중년층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년간 장년층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고용시장이 불안정해 임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고 있는 추세라 정규직을 고용해야 하는 이번 사업이 고용시장의 숨통을 트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아동학대 예방 고강도 대응체계 구축

고위험 아동 대상 전담공무원 집중점검·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 구성

최근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임실군이 고위험 아동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고강도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심민 군수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로 큰 충격과 무거운 사명감을 느꼈다"며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집중점검을 통해 지역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군은 정인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드립스타트 사업 등을 통해 관내 위기 아동 보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관리를 해왔다. 최근에는 아동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집중점검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전담공무원과 드립스타트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관찰하고 양육환경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달 중에 아동보

호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집중점검을 통해 발빠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이 발견될 시 드립스타트 사업 등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도 구성하여 공무원과 관련 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남원시에서는 지역농산물 소비를 통해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14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영세 농식품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며, 지원내용은 식품기계장비 지원으로 1개소 당 사업비는 5,000만원(시비 2,500만원 자담 2,500만원)으로 4개소를 지원할 계

획이다. 신청자격은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이나 생산자단체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운영실적 2년 이상이고 매출액은 10억원 이하, 주원료를 국내산 농산물 60% 이상이어야 한다.

남원시는 서류검토와 현장 및 서류 평가를 통해 사업타당성,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원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희망업체는 농촌활력파로 방편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

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및 남원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삼체 농촌활력파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를 증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생산시설 현대화 및 품질고급화를 통해 농식품 가공분야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번 공모에 지역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에 있어

평소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여겨지던 남원지역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며 어느덧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7일 새벽 추가 확진자가 남원의 A병원에서 치료받던 입원환자가 전주 B병원으로 이송된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관정음(전북 908번) 환자 전라북도 역학조사반과 함께 A병원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동선확인 및 A병원 입원환자와 직원들의 전수검사 과정에서 입원환자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남원 21번에서 23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확진자 3명은 8일 오전 감염병 전담병원인 남원의료원에 격리 조치됐다.

특히, 확진자 동선 파악 중 A병원 확진자 보호자 1명이 확진자(남원 24번)로 확인됨에 따라 24번 확진자의 마을에 대한 전담방역을 마쳤으며, 남원시 보건담곡은 확진자 진술과 CCTV 등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감염경로와 밀접접촉자를 추적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양봉농가 등록 제도기간 연장

남원시가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봉농가 등록 제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8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제도기간으로 정하고 등록을 받았지만, 70% 농가만 등록해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대한 배려로 2021년 8월 31일까지 제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봉농가 사업장의 사용권한 인정범위도 토지소유주의 사용동의서 또는 사용승낙서 등 사업장에 대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했으며, 등록대상은 토종꿀벌은 10군 이상, 서양종꿀벌 30군 이상, 혼합(토종꿀벌 10군 미만,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농가로 변동이 없다. 등록은 구비서류를 갖춰 시(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